

태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513천km ²	GDP	3,656 억 달러 ('12)
인구	66.79 백만명 ('12)	1인당 GDP	5,678 달러 ('12)
정치체제	입헌군주하의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aht(Bt)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환율(달러당)	31.08 ('12)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유적지, 아름다운 자연환경,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활황을 이룸.
- 입헌군주국으로 1946년 즉위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총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2011년 7월 이후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총재이자 전 탁신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이 28대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태국과 1958년 10월에 국교수립을 한 이후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을 체결함.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012년 기준 1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누계기준)는 19억 달러를 시현함.
-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 AFTA)의 중심국가로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칠레 등과의 FTA 협정 추진으로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민간투자 위축,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 경제성장률은 7.8%까지 상승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 산업설비 가동 중단, 전력공급 중단 등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0.1%로 둔화됨.
- 2012년에는 대외수요 저하 및 홍수에 따른 산업설비 파괴 여파로 산업생산은 저조했으나 기저효과, 피해복구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설비투자 활성화, 민간소비 증가(임금 상승, 자동차 및 주택 구입시 인센티브 제공, 신용확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6.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에는 대규모 인프라 추진에 따른 정부투자 증가, 관광산업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효과 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민간투자 위축, 수출증가세 둔화, 제조업(자동차, 식음료) 생산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둔화된 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이후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규모 확대

- 2012년 정부는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산업단지 및 주거지 복구에 투입하고 113억 달러 규모의 물관리 프로그램(Water Management Program)을 도입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7%로 확대됨.
- 2013년에도 660억 달러 규모의 투자프로그램(Investment Program) 실시, 쌀·고무 농가 보조금 지급, 법인세 인하(23%→20%)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확대된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유지

- 2011년에는 유가 상승, 홍수 발생에 따른 식료품 및 소비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함.

- 2012년에는 임금상승, 전기세 인상, 특별소비세(담배, 술)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하락함.
- 2013년에는 국제유가 및 상품가격 안정,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 확대,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제성장률	-2.3	7.8	0.1	6.4	5.9
재정수지 / GDP	-3.2	-0.8	-0.7	-1.7	-2.7
소비자물가상승률	-0.9	3.3	3.8	3.0	3.0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로 대외 변동성에 취약

- 태국은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출규모 3위인 수출 주도형국가로, 2012년 기준으로 총수출/GDP은 약 77.4%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수요확대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어 2010년에는 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큼.
- 또한, 1985년 엔고현상을 계기로 일본기업들이 태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면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자동차, 전자 산업 등 주요산업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국기업 철수 시 산업공백의 우려가 높음.

□ 노동자 부족에 따른 제조업 위기

-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2013년 노동 수요가 공급을 처음으로 상회함.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일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10달러(300바트)이며, 월평균 임금은 302달러로 상승함.
- 이에 따라, 섬유 등 노동집약 산업의 태국 이탈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최근 5년 동안 관련분야의 노동수요는 절반으로 감소된 300,000~400,000명 수준을 기록함.
- 노동력 부족과 지속적인 임금 상승은 동국의 주요산업인 자동차, 전자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금년 말 대규모 인프라 산업이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은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성장 둔화

- 태국은 1990년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했으나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경제 성장기반이 급격히 약화됨. 과거 외국인투자 개방, 무역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으나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등으로 투자에 대한 이윤이 감소하면서 민간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됨.
- 노동집약적 산업은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였으며 체계적 고등교육 체계 미비로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성장 기반이 약해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민법과 교육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우수한 인력 양성, 대규모 공공투자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성장 잠재력

□ 우호적인 외국인투자환경 조성

-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기업들에 우호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친기업환경이 조성됨.
- 2013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 태국은 185개국 18위로, 전력수급(10위), 대외무역(20위), 사업허가(16위)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

- 국가별 기업경영여건 순위: 중국(91위), 베트남(99위), 인도네시아(128위), 필리핀(138위)

-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2013~14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태국은 37위/148로 작년보다 한단계 상승했으며 시장규모(22위), 거시경제 안정성(31위), 상품시장효율성(34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함.

□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

- 청정해안과 열대성 기후로 연중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완나폼 공항의 신설과 파타야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과 푸켓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태국 관광객 수는 2009년 1,414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역대 최고인 2,230만 명을 기록함. 2013년 1분기에도 관광객은 682만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하면서 관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태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주효

- 태국은 농업기반의 전통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해왔음.
 - 유연한 노동시장과 친기업적인 노동법 등으로 다국적 기업이 전기전자 산업 및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여 태국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함.

□ 적절한 통화정책 시행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

-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화 정책 시행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1999년에서 2013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 ~ 5.5% 범위내로, 평균 2.5%를 기록하는 등 변동률이 타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정책 포플리즘과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선거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12년 민간 부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약 40% 인상하였으며, 2013년 1월에도 20%의 추가 인상을 단행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30%에서 2012년까지 23%로 인하한데 이어 2013년에도 20%로 낮추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음.
- 또한 2011년 하반기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태국정부는 정책기조를 수정하여 피해가 집중된 중앙평원지역의 도로망 정비와 산업시설 복구에 예산 투입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의 예산 확대를 통한 복구작업으로 경제성장률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재정수입 부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됨.

3. 대외거래

□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흑자 축소

- 2010년 세계 경기회복세로 대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내소비 및 투자의 회복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9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홍수발생에 따른 산업시설 파괴 및 쌀 수출 감소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국제 유가 상승, 식료품 및 소비재 등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43% 감소한 170억 달러를 시현함.
-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와 주요 수출품 생산시설의 복구 미비에 따른 수출증가 둔화,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흑자 폭은 83억 달러로 전년보다 축소됨. 이러한 추세가 2013년에도 지속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은 전년보다 60% 감소한 3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지 흑자 축소 및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2013년 경상수지는 적자 전환

- 2009년 219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기업들의 무역관련 서비스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태국진출 외국기업들의 배당금 송금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소득수지 적자 기록, 상품수지 흑자폭 감소 등으로 2011년 경상수지는 59억 달러까지 축소됨.
- 2012년에는 홍수피해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외국인 송금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는 전년보다 감소한 28억 달러를 기록함. 2013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 상 수 지	21,891	9,946	5,918	2,759	-580
경 상 수 지 / G D P	8.3	3.1	1.7	0.8	-0.1
상 품 수 지	32,608	29,667	16,991	8,346	3,326
수 출	150,788	191,600	219,119	226,114	226,994
수 입	118,180	161,933	202,128	217,768	223,668
외 환 보 유 액	135,483	167,530	167,389	173,328	164,740
총 외 채 잔 액	75,389	100,716	105,984	128,444	131,742
총 외 채 잔 액 / G D P	28.6	31.6	30.7	35.1	32.9
D S R	7.2	4.5	3.3	3.3	3.2

자료: IMF, EIU, OECD.

□ 경상수지 적자전환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전망

- 상품수지 흑자축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09년 1,355억 달러에서 2012년 1,733억 달러로 증가함. 한편, 2013년 경상수지 적자전환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1,64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외환보유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로 2009년 9.6개월에서 2012년 7.1개월로 낮아짐. 2013년에는 수입증가 및 외환보유액 감소로 6.6개월 수입액을 보전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총선에서 친탁신계의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집권

- 2011년 7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최대 야당이자 친탁신계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 총 500개 의석 중 과반수가 넘는 265석을 차지하여 집권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당총재인 잉락친나왓(Yingluck Shinawatra)이 28대 총리로 임명됨.
 - 잉락친나왓은 정치경력이 전무하나 탁신 전총리의 여동생이라는 정치적 후광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당을 이끌고 압승한 것으로 분석됨.
 - 탁신 전총리의 영향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여당은 2011년 11월 탁신 전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탁신 전 총리가 사면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임.

□ 친정부세력과 반대세력간 갈등 지속

- 2011년 총선에서 친탁신계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승리로 임명된 잉락 총리가 탁신 전총리의 사면 및 탁신 지지자들의 정부 요직임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정국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잉락 총리는 쿠데타 후 범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정치사범들을 사면시키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화합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은 동 법안이 탁신의 범법 행위에 대한 사면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푸미폰 국왕의 노쇠화로 인해 정정 불안 가능성 잠재

-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현실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푸미폰 아둔야뎃 (Bhumibol Aduladej) 국왕은 86살의 고령으로 2009년 이후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태국의 정정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푸미폰 국왕의 유일한 아들 마하 와찌랄롱꼰(Maha Vajiralongkorn) 왕세자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왕위계승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반정부세력에 의한 시위로 불안한 상황 지속

- 친정부세력과 반대세력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태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인 반독재민주전선(UDD)은 2010년 3~5월까지 방콕 중심가를 점거한 채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의 강제 진압으로 유혈사태로 번져 동 기간 중 88명의 사망자와 2,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또한, 2012년 10월 잉락 친나와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퇴역 장군이 이끄는 시암피탁 그룹(반 탁신성향) 주도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11월에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138명이 체포되었음.

3. 국제관계

□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1967년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창설과 함께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 AFTA) 창설 또한 주도적으로 제안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함.
- 또한, 태국은 타 아세안 국가와 2015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결성하기로 함으로써 상품 관세의 철폐, 투자에 대한

규제의 철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조정을 통한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확대 추진

- 태국은 EU 등 여러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 확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탁신정부 이후 과거 소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화를 통한 세계 3대 지역주의 중 한축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태국은 현재 뉴질랜드, 페루, 호주, 일본과 FTA를 기체결했으며,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 미국, 칠레, 인도, Bimst-EC(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경제협력체)와 협상중임.

□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으로 갈등 잠재

- 캄보디아-태국간 오랜 분쟁지역이었던 국경지대의 프레아비헤아르(PreahVihear)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 양국의 군대가 국경에서 대치하면서 여러 차례 교전을 벌였으며, 2011년 2월에도 교전이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는 등 국경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
- 민주당 집권기간 동안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으나, 2011년 7월 총선 이후 취임한 잉락총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국경문제 해결에 전환점을 맞이함.
 - 양국은 태국만 해역에서 유전과 가스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한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UN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 국경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지정하여 평화조성에 힘쓰고 있음.
-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양국은 분쟁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으나 이후에도 국경문제의 재발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외지급능력 양호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 및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외채규모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2012년까지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D.S.R. 및 GDP 대비 단기외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2013년 3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61억 달러, 중장기 55억 달러로 총 116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없음..

□ 외채 관련 지표 개선

- 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과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는 1998년 93.8%에서 2013년 32.9%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수출 증가로 2009년 7.2%에서 2013년 3.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특성상 당분간은 이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2013년 6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불안, 정부부채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하여 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종전의 3등급으로 유지함.
- 태국은 S&P, Moody's, Fitch 등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S&P는 2008년 12월 태국의 공항폐쇄와 반정부 시위를 반영하여 BBB+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으나, 2010년 12월 정치 및 경제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다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재까지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12년 5월 태국정부가 소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정국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태국 장기외화표시 채권등급을 BBB+에서 BBB로 1단계 하향조정하였으나 2013년 3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촉진으로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등급을 BBB+로 1단계 상향조정함. Moody's는 2003년 11월 이후 Baa1로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13. 6)	3 급 (2012. 3)
S&P	BBB+ (2004. 8)	BBB (2003. 10)
Moody's	Baa1 (2003. 11)	Baa3 (2000. 6)
Fitch	BBB+ (2013. 3)	BBB (2012. 5)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58년 10월 1일 (북한과는 1975년 5월 8일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1), 항공협정(1968), 이중과세방지협정(1977), 투자보장협정(1989), 해상운송협정(2002), 문화교육협정(2004)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태국과의 교역규모는 2009년 중 경기침체로 인해 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이후 경기회복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39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교역규모는 136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기업의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6월 기준 총 765건, 19.5억 달러(투자누계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 제조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 12.8백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임.

<표 3> 한·태국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1~8월)	주요 품목
수 출	8,459	8,221	5,595	철강관,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 입	5,413	5,353	3,589	임산부산물, 반도체, 기호식품
교역규모	13,872	13,574	9,184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2012년 피해복구 관련 정부지출 확대,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 관광산업 호황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6.4%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정부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출이 2011년 하반기부터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7%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상품수지 흑자 감소,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로 2013년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1년 총선에서 친탁신계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과반 승리로 취임한 잉락총리가 탁신 전 총리의 사면 및 탁신 지지자들의 정부요직 임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정국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탁신 전 총리의 퇴임 이후 친-반 탁신세력간의 갈등이 시위로 표출되고 있어 사회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말 기준으로 외채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낮은 D.S.R. 및 단기외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서은주 (☎02-3779-5705)

E-mail: seoeunchu@koreaexim.go.kr